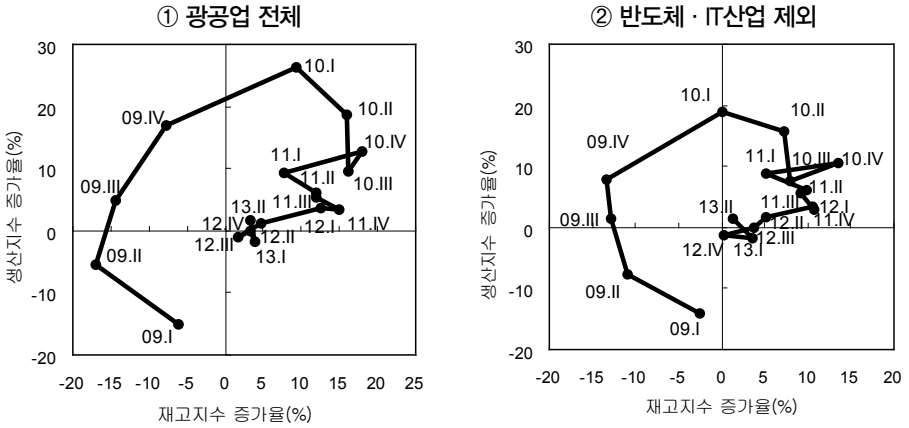
거시경제의 동향 및 전망*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거시 · 금융정책연구부장)

1 2013년 1분기 산업동향

⊙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 및 서비스업이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건설업 및 공공행정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부진이 완화

[그림 1] 최근의 생산 · 재고 순환



주 : 2013년 2/4분기는 4월 수치임.

* 이 글은 「상반기 KDI 경제전망」(KDI 경제동향 6월호)을 정리한 것임.

– 생산 · 재고 순환(반도체 · IT산업 제외)은 생산지수가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재고지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 관련 심리지표는 소폭 개선

※ 4월 중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1.7%)보다 소폭 상승한 2.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p 상승한 10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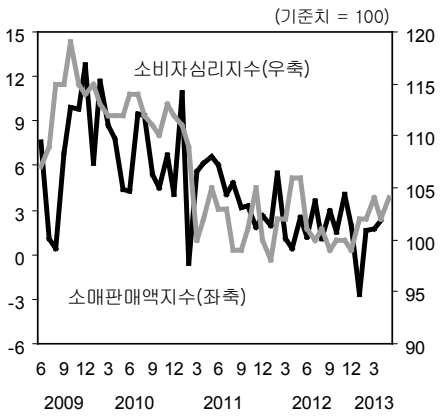
– 투자는 설비투자가 부진하였으나,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

※ 4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12.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월(−8.1%)보다 감소폭이 소폭 확대

※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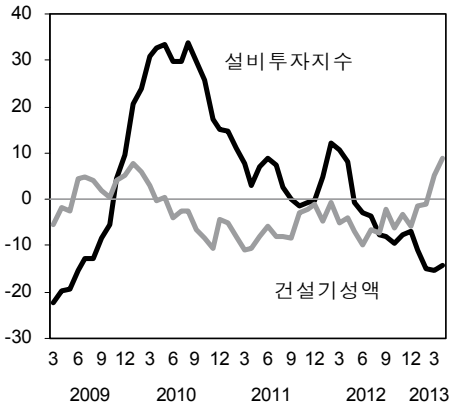
[그림 2]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그림 3] 설비투자지수 및 건설기성액(3MA)

(단위 : 전년동기대비, %,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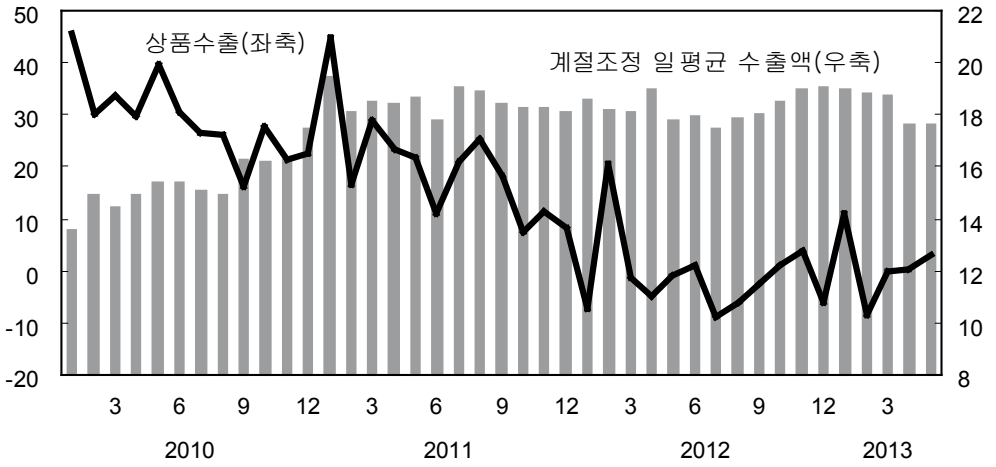


⊙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 수입 감소세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월보다 확대된 60.3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은 IT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수입은 주요 에너지자원 수

[그림 4] 상품수출 및 일평균수출액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입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여 감소폭이 확대

⊙ 노동시장은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임금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4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4만 5천 명(1.4%)이 증가하며 전월(24만 9천 명, 1.0%)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 3월 중 상용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명목 및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및 2.7%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물가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세가 지속되며 1.0%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

- 상품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에 주로 기인하여 전월(0.8%)보다 낮은 0.4%의 상승률을 기록

⊙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장기금리는 상승

- 장기금리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는 28bp를 기록하며 금리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

2 최근 세계경제 상황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지속

- 미국경제는 일부 심리지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유지
- 유로경제는 생산과 소비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모습
- 일본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실물경기가 완만하게 개선
- 중국경제는 일부 실물경제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수출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전망기관들은 주요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고용 부진 등을 반영하여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세계경제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

〈표 1〉 주요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OECD)

(단위 : %)

전망시점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2012년 11월	3.4	2.0	−0.1	0.7	8.5	6.5	4.0	3.8
2013년 5월	3.1	1.9	−0.6	1.6	7.8	5.3	2.9	2.3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2, May 2013.

- 국제금융시장은 달러화 가치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❸ 경제전망

⊙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세계경제는 2013년에 완만하게 개선되고, 2014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제

- 원유 도입단가는 2013년에 배럴당 104달러 내외를 기록한 후, 2014년에도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엔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제

⊙ (2013~14년 경제전망) 우리 경제는 2013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3년에는 작년의 경기둔화로부터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산 가격 하락세도 둔화되면서 2013년에 2.3%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되면서 연간으로 2.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2014년에는 대내외 수요 확대 등으로 8%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진이 완화되며 2013년과 2014년에 2~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대외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2013년에 6.4%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회복세가 확대되며 8.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2013년에 397억 달러, 2014년에 307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2013년에 1.8%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3%, 3.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전망의 위험요인) 재정긴축 등의 영향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심화와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재정긴축 강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
- 반면, 재정긴축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유로지역 및 미국 등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대외수요 확대로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경우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
- 부동산시장의 회복 지연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내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2〉 2013~2014년 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2012	2013					2014
	연간[1)]	1/4[2)]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2.0	1.5 (0.9)	2.0 (0.7)	2.9 (1.0)	3.7 (1.0)	2.6	3.6
총소비	2.2	1.6	2.8	2.7	2.9	2.5	3.3
민간소비	1.7	1.6	2.3	2.5	2.7	2.3	3.4
총고정투자	−1.7	−4.5	1.2	4.6	7.3	2.4	5.0
설비투자	−1.9	−11.5	0.1	9.7	14.3	2.8	8.6
건설투자	−2.2	0.7	1.6	1.7	3.9	2.1	2.9
총수출(물량)	4.2	3.6	6.0	7.7	8.3	6.5	8.6
상품수출(물량)	3.8	4.8	6.1	7.1	7.5	6.4	8.4
총수입(물량)	2.5	1.8	5.4	6.6	7.6	5.4	8.4
상품수입(물량)	1.5	1.3	5.3	6.4	7.3	5.1	7.8
경상수지	431	100	99	97	101	397	307
상품수지	383	94	107	111	118	430	368
수출(금액)	5,526	1,374	1,418	1,417	1,475	5,684	5,930
(증가율)	(0.1)	(2.0)	(2.2)	(3.4)	(3.8)	(2.9)	(4.3)
수입(금액)	5,142	1,280	1,311	1,306	1,357	5,254	5,562
(증가율)	(−1.1)	(−3.1)	(0.7)	(5.5)	(5.8)	(2.2)	(5.9)
서비스수지, 본원 · 이전 소득수지	48	6	−8	−14	−17	−33	−61
소비자물가	2.2	1.4	1.4	2.1	2.4	1.8	2.6
(근원물가)	(1.7)	(1.4)	(1.4)	(1.9)	(2.2)	(1.7)	(2.4)
실업률 (계절조정)	3.2	3.6 (3.3)	3.3 (3.4)	3.1 (3.2)	3.1 (3.3)	3.3	3.2

주 : 1) 잠정치.
2) 속보치.

참고자료 :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

⊙ 국내 주요 경제전망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2013~14년에 각각 2.7%와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우리 경제는 2013년에 당초 예상보다 낮은 2.7%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성장세가 3% 중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해외수요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50억 달러 및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3년에 작년보다 상승한 3.4%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13년에 2.1%의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2%대 중반까지 상승할 전망
- 한편, 2/4분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난 1/4분기 전망치와 유사한 가운데, 금년 중 회복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평가

〈2013~2014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억 달러, 만 명)

조사시점[1]	GDP	수출[3]	경상수지	실업률	취업자 수[4]	소비자물가
2013년 1/4분기	2.8	5.2	293	3.3	34	2.4
2013년 2/4분기[2]	2.7 [3.5]	4.0 [7.4]	357 [287]	3.4 [3.3]	30 내외 [34]	2.1 [2.7]

주 : 1)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각각 2월 중순과 4월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
2) 2013년은 1/4분기 실적치와 응답자들의 전망치(2/4~4/4분기) 평균으로 연간 수치를 계산.
3) 통관기준 자료.
4) 전년동기대비 증감.
5) [ ] 안은 2014년 전망치.